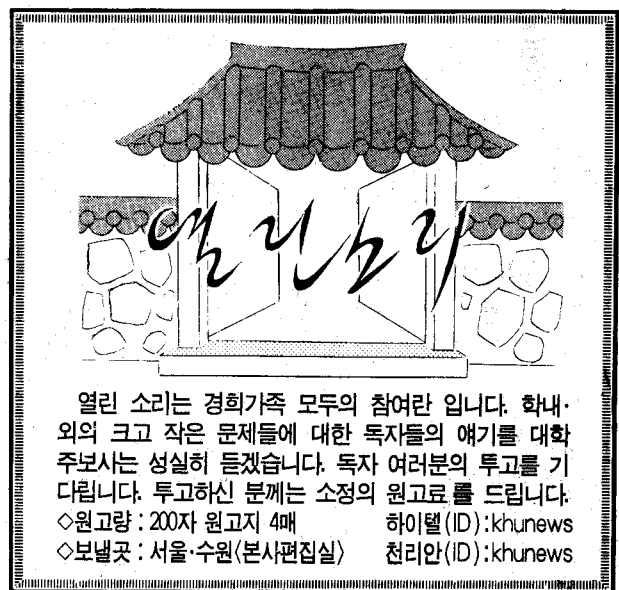




부당한 의료회비 공제원칙 회비집행에 투명성 필요

매학기마다 받는 등록금 고지서에는 두종류의 납부내역이 있다. 하나가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를 포함한 등록금이 고, 다른 하나가 자치회비이다. 그 중 의료회비의 부당한 공제원칙과 그 수납방식의 불합합을 이 글에서 고발하고자 한다.

나는 96년 10월 1일부터 경희의료원 치과병원에서 진료료를 받았다. 종합병원의 그 지리한 진료속도 때문에 97년 7월 7일까지 치료는 계속되었다. 문제는 만성적인 종합병원의 치료행태가 아니라, 학생의료보험의 공제시기에서 발생했다. 학생의료보험은 총 진료비 중 일반의료보험에 의해 공제되는 항목에 한해 일반의료보험에 의해 공제되고 난 나머지 금액의 80%를 공제해준다. 내가 받은 치료내역은 그 특성상 의료보험에 의해 공제되는 항목이 적었고 일반의료보험에 의해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97년 2월 28일 진료까지였다. 따라서, 학생의료보험에 의해 공제액을 받을 수 있는 진료도 97년 2월 28일까지라는 뜻이 된다. 치료

는 97년 7월에 끝났으므로, 나는 7월말경에 학생치료 공제액을 받으러 갔다. 담당자는 영수증을 너무 늦게 가지고 와서 공제액을 줄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즉, 현 시점은 97년 1학기인데 치료를 받은 것은 96년 2학기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었다. 먼저 당황한 것은 치료를 시작하기 전에 학생치료 문의했음 당시에는 전혀 듣지 못한 내용이라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학기가 지나서 공제액을 돌려줄 수 없는 근거로 제시한 것이 첫째, 매 학기마다 학생의료회비를 내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이었다. 나는 96년 2학과와 97년 1학기의 학생의료회비를 이미 납부한 상태였고, 더 요구한다 면 입학(94년) 이후 모든 학기의 학생의료회비 영수증을 제시할 수도 있었다. 학교측에 고지서의 원부는 분명히 보관되어 있을 것임에도 그처럼 단일한 근거를 내세운 것이다. 둘째, 학교의 전산처리가 학기별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학생의료회비를 납부한 학기에 경희의료원에서 진료료를 받아서 그 해당학기 내에 학생치료 영수증을 제출하라는 것이다. 진료료를 받는 학기와 영수증을 학

생처에 제출하는 학기가 다를 경우 공제액을 돌려줄 수 없다는 말이다. 돌려줄 수 없는 근거는? 학기별 전산처리! 일반의료보험의 경우, 진료비를 낼 때 우리는 일반의료보험에 의해 공제된 금액을 낸다. 학생의료보험의 경우라면, 학교에서 지정한 병원에서 보험급여항목에 해당하는 진료를 받고 진료비를 낼 때 학생보험에 의해 공제된 금액을 내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학교는 지정병원에서 진료를 받더라도, 학생의료보험에 의한 공제액을 바로 처리해 주지 않는 것이다. 공제액은 차후에 학생치료 가서 받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이중의 번거로움을 부담시키면서, 학생처에 영수증을 제출하는 시기를 문제삼는 것은 학교의 편의만을 생각하는 처사라는 생각을 넘어서서, 학생의료회비의 사용목적에 의심을 하게 만든다. 마땅히 병원 진료시 처리되었어야 할 돈을 제때에 돌려주지 않은 것은 학교측이면서 말이다.

흔히 8천5백 경희학우라고 한다. 한학기에 그들이 1인당 학생의료회비로 내는 돈은 7천원, 그 돈을 전부 합하면 학학기에 6천만원이 된다. 과연 그 돈은 어디서, 무엇을 위해 쓰이는 걸까!

최 보 연
(국문 3)

**교통사고로 다친 학우
관심과 사랑 갖기를**

지난 8월 3일 규영이가 학교로 들어오기 위해 두산아파트 앞 횡단보도를 건너는 도중 빗길에서 과속으로 달리던 차에 치였다. 가해자는 뺑소니를 쳤고 다행히 주변에 있던 시민들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졌다. 결과는 두개골이 깨지고 목뼈와 척추가 다치는 최악의 상태. 나중에 사소한 가해자는 합의 능력이 없는 젊은 사람이었

고, 책임보험 밖에는 들지 않아 병원비 지불능력이 거의 없다. 다행히도 현재는 세 번의 뇌수술을 통해 자력으로 호흡할 수 는 있지만, 의식은 아직 돌아오지 않고 있다. 9월 23일 수액을 빼내는 수술을 했고, 앞으로 계속 치료를 해야 하지만 3개월 정도 후에야 정확한 진단이 나오며 지금의 의사 이야기는 평생 생식물인간으로 살아야 할지 모른다고 한다.

주위 사람들의 사랑과 관심이 규영이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나, 현실적 어려움 또한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어머니가 몇 년 전에 돌아가시고, 아버지마저 사업의 실패로 채권자에게 쫓겨 다니게 되자 생활은 더욱 어려워졌고, 결국 스무 살 규영이의 손은 펜 대신 일거리를 찾게 되었다. 요즈음을 살아가는 젊은이라면 누구나 그렇듯이 규영이도 어렵고 힘든 사정이지만 티없이 맑고 건강한 삶을 살던 우리 친구였다. 그런 규영이가 지금은 언제까지 병원생활을 저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사고당시엔 하루 백만원이 넘었고 지금도 턱없이 부족한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고통받고 있다.

한 번도 본적 없는 사람이라고, 친하지 않은 친구라고 외면할 경희 학우는 아무도 없을거라 생각한다. 바쁜 생활에 쫓겨서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다보면 옆 친구의 고민이 무엇인지, 집안사정이 어떤지 모르고 살기도 하고, 자신의 문제가 아니면 관심조차 가지려고 하지 않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하지만 규영이를 돕는 일에 보여준 경희 학우들의 사랑과 정성은 우리를 가슴속에 남아있는 학우사랑이 무엇인가를 느끼게 한다.

규영이의 고통을 함께 하려는 학우들이 있는 한 규영이는 반드시 일어날 것이다!!

장 준 기
(환경 3)

문화공연 호응저조 많은 참여 이뤄져야

2학기가 시작된지 이제 한달이 다되어 간다. 그리고 그 동안 여러 학내 문화 공연이 열렸다. 그러나, 총학생회나 동아리들이 정성을 다해 마련한 이런 자리들에 학우들의 호응도가 너무 낮았다.

지난 26일 서울 캠퍼스 입간 교실에서는 정경대 노래패 '동트는 새벽'의 작은 공연이 있었다. 공연 시작 두시간전까지 비가 왔다 치더라도 그날 공연은 썰렁하다 못해 처량하다시피 했다. 주최측의 인원 5명정도 포함하여 실질적인 청중은 10명 남짓했으니... '동트는 새벽'의 노래가 온 캠퍼스를 울렸지만 그들에게 박수를 쳐준 학우들은 극소수였다. 연주자들에게 측은감마저 들었다.

매주 수요일 노천극장에서 서울 캠퍼스 총학생회가 주최하는 수요일 영화제가 있었다. 총학생회는 직접 작품을 선정하고 상영기 및 상영관을 직접 운반하는 성의를 보였다. 그러나 이 역시 학우들의 참여도는 높지 못했다.

앞에서 예를 든 '동트는 새벽'이나 총학생회뿐 아니라 모든 학내 행사를 준비한 모임들은 오랜 시간을 투자해 행사를 준비해왔다. 때때로 난관에 부딪히더라도 행사후 맛보는 보람을 생각하며 맘을 졸여왔다. 문화가 죽어가는 이 시대에 적어도 학내 문화행사는 살려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다른 어떤 처방보다 학우들의 관심과 참여가 주축하는 이들에게는 천군만마가 될 것이다.

김 보 승
(경제 3)

독자의 시

나

유동근
(무역 2)

문득 지나간 시간이 보고 싶을 즈음이면, 책꽂이에 꽂혀진 먼지 묻은 책 한권을 펴 든다. 나와 함께 커다란 꿈을 해 온 일기장 시간이 지나간 자리에는 내가 지나간 흔적이 함께 있다.

이미 있었던 나는 일기장 속에 기억됨으로 진정 나일 수 있다.

나와 같은 색깔을 가진 일기장은 나에게 시간을 느끼게 한다. ...공백인 줄 알았다. 이렇게 보내지는 자살한 시간들을 나는 그저 뛰어넘기를 하고 있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조각 맞추기 시간과 내 모든 것이 맞물림 이것이 나왔다.

수원 중앙도서관 도서 기증자

(97.5.30~9.24)

이 름	기증권수	이 름	기증권수
서울도서관	20,180	이숙자	4,000
교내서점	1,340	서울교수회관	868
이영준	753	오택열	653
국회의원회관	643	강용구	618
김봉걸	581	정규진	581
송영재	540	박규홍	507
법한서적	445	윤병태	431
공영일	330	박경운	302
장의태	227	백남철	217
김형재	207	산정원출판본	206
김영재	199	이건수	171
고태환	160	이재운	160
이상목	157	박경식	149
이도훈	146	김희정	142
최필호	141	이한규	131
조창	120	강정모	116
이정명	103	김동술	100
정대근	100	신현덕	95
이일연	91	이상분	87
이석우	82	임기환	72
재단사무이사	72	송명희	68
김상남	68	이승용	56
자연대학학과수	53	장문호	52
김인석	52	김동호	52
최상익	50	강제상	50
김영수	50	조복희	46
조병준	41	김한원	40
송성진	40	이창순	40
정진오	39	김혜란	36
이천용	32	박경운	31
박양병	25	박기태	24
김종호	23	박금희	20
이봉주	20	이용재	20
이호상	20	김병학	17
황보경임	17	김한원	16
김효민	16	서석경	16
최은경	16	육선용	12
김현주	11	손권남	11
기 타	251	총 계	37,978

경희발전기금 출연내역 및 명단

출연금의 많고 적음은 제한하지 않습니다.
관심과 정성에 경희의 미래는 밝습니다.
출연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 기탁자 명단은 접수순입니다. ('97. 9. 18-9.26)

△이건수(동아일렉콤 회장, 정외12회)	3억원	▲경희사랑저금통	
△손재식(평화복지대학원장, 2차분)	1백만원	△조용호(의대 의학과교수, 학생처장, 8차분)	5만7천7백40원
△박희영('78 국어국문학과, 교양독일어 강사)	1백만원	△신현시(가정대학 교무과) 3만9천1백70원	
△조이준(경희여고 교장, 2차분)	1백만원	△서정석(교무처장, 무역학과 교수)	3만3천2백30원
△이태원(삼양인재사 대표, 법6회)	5백만원	△이관식(외국어대교양과 교수, 3차분)	4만9천3백원
△전준식(동아정밀 대표, 중문1회, 2차분)	3백만원	△손백현(대외협력실 과장, 3차분)	9천90원

朔風

몇달 전이었다. 가르치던 아이들에게서 통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그애들 말에 따르면 통일이 되면 지금과 같은 경제성장이 없을 것이고 가난해지기 때문에 싫다고 했다.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할 말이 없었던 것 같다. 말로만 들던 세대차이가 실감났던 것도 그 순간이었다. 우리가 통일은 무조건 해야 한다고, 하나의 지상과제라고 믿는다면 요즘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였다.

*주사기는 갈라진게 몇개 있어

손놓고 구경하기(?)

들어서 쓰고 또 씩니다. 탈지면도 없어서 기본이 3회 반복이예요... 뻔히 아는 병을 약이 없어 환자들이 죽어가는 걸 생각해 보시오... 기차역에서 남매가 눈에 눈물이 말라있는 상태로 서로 껴안고 죽어있는 모습을 본다면 어드랄겠어요?

북한을 탈출한 한 의사가 말한 북녘의 상황이다.

단 하루라도 배불리 먹었으면 하는 바람뿐이라고 하는 한 탈출자의 말을 빌지 않더라도 북한의 현재 상황은 참담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이

들마져 손놓고 구경하는 것은 아닐까.

어디 다른나라에서 사람들이 굶어죽고 있다면 당장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했을 것을 같은 동포가 죽어가고 있다고 해도 무관심하게 등돌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부터 따뜻하게 풀어주고 이들을 도와줄 수 있을 때만 언젠가 통일이 되는날, 동포들을 부끄럽지 않게 볼 수 있을 것이다.

<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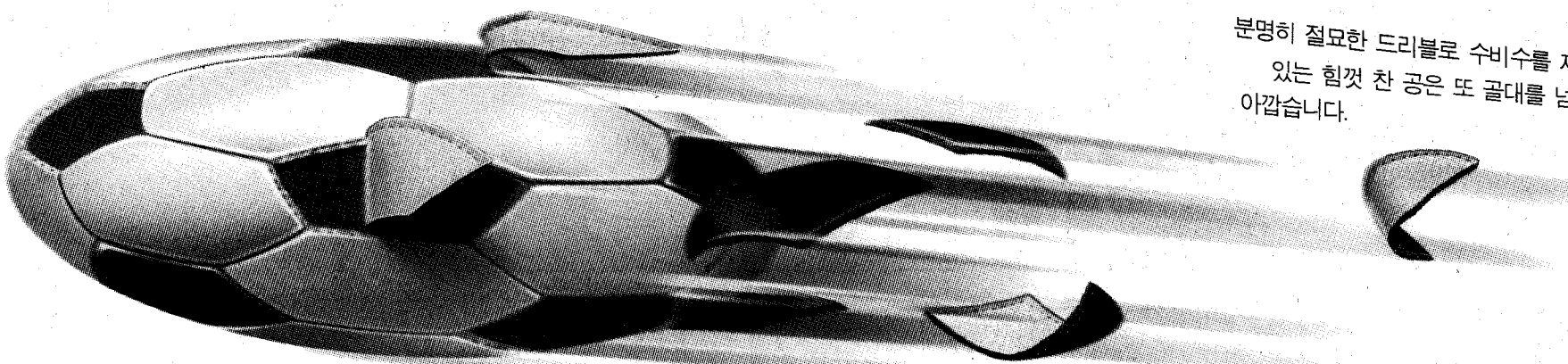


사람, 사회, 미래를 위한 가치경영



내일을 향해 차라!

분명히 절묘한 드리블로 수비수를 제치고 눈앞에 골문은 하늘만큼 넓게 열렸는데, 있는 힘껏 찬 공은 또 골대를 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관중입니다. 진짜 경기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니깐요.

당신이 어떤 상황에서도 여유있게 대처할 수 있는 준비만 되어 있다면 이 사회는 그리 어려운 상대가 아닙니다.

가볍게 차보기도 하고, 팀워크도 맞추어보고, 상대방을 제압할 수 있는 전략도 세워보고, 대학생활동안 많은 경험을 쌓으며 충분한 준비를 하세요. 그리고 사회를 향해 강수를 넣으십시오.

현대는 미래를 준비하는 젊음을 가치롭게 여깁니다

